

# 광주도 '멧돼지 공포'

## 무등산 생태환경 개선되며 개체수 크게 늘고 출몰 잦아



광주시 동구청이 무등산 자락에 설치한 포획틀에 지난 1일 잡힌 멧돼지(무게 60kg)가 잡혀 있다. 동구에서는 지난해 멧돼지 52마리가 포획됐다. <동구 제공>

광주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자락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지난 3일 아침잠에서 깨자마자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 자신이 키우던 토끼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토끼 우리(가로 1m×세로 1m×높이 1m)를 두른 나일론 재질 그물은 뚫려 있었고, 토끼 사료통 안에 있는 먹이도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며칠 전에도 인근 대나무에서 자신이 키우던 염소가 가족만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던 터라 공포감은 더욱 컸다. A씨는 멧돼지의 소행을 의심하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광주 동구청에 포획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접수한 동구청은 A씨의 축사 인근 야산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수렵단체에 의뢰해 멧돼지 포획에 나섰다. 멧돼지는 여전히 염사들의 충구를 피해 무등산 일대를 활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무등산 출구인 북구 두암동 군왕봉(해발 350m) 등산로 입구에서 멧돼지를 봤다는 신고가 북구청에 접수됐다. 평소 등산객들의 통행이 잦은 이곳이 빨리 잡아달라는 내용이였다. 등산객들은 언제 어디서 멧돼지와 마주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산을 오르고 있다.

무등산을 자주 오르다는 김민주(여·45)씨는 “무등산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자주 나온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산행 때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서식하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광주 도심으로 오르내리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민가 토끼·염소 잇단 피해 지난해에만 207마리 포획 광산·동·북구 급증 추세 뾰족한 대책 없어 시민 불안

광주시 등 행정당국은 국립공원 승격 후 무등산의 생태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야생동물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별다른 안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등을 보이지 말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몸을 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광주시와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각 구가 수렵단체에 의뢰해 포획한 멧돼지는 207마리에 달했다. 각 구별로 광산구 87마리, 동구 52마리, 북구 49마리, 남구 15마리, 서구 4마리 순이었다.

지난 2015년 59마리, 2016년 119마리 등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광주·전남 산악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멧돼지는 1㎢당 3.6마리로, 10년 전인 2008년 2.3마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에는 45만여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 구청 생태환경 담당자들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생태환경이 개선되며 왕성한 번식력, 천적 부재

등으로 인해 멧돼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멧돼지 목격 신고 건수와 포획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멧돼지 신고는 주로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된 데 비해 최근 동구와 북구에 접수된 신고는 폭설과 관련이 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겨울철 먹이를 찾아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지난 1일에는 광주 동구 운림동에서 동구청이 설치한 철제 포획틀에 60kg 상당의 암컷 멧돼지 1마리가 잡히기도 했다. 동구청은 지난해 8월부터 멧돼지 출몰이 잦은 운림·학·용연동 등 3곳에 포획틀을 설치한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폭설로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역 싸움에서 밀린 멧돼지들이 사람이 사는 인가 등에 자주 출몰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포획틀을 비롯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기 광주전남야생생물관리협회 사무국장은 “멧돼지는 후각에 비해 시각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나 마주치면 조용히 나무 등 은폐물 뒤로 몸을 숨겨야 한다”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고 달아나면 멧돼지 습성상 달려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멧돼지를 비롯한 사람의 경계가 덜한 들개나 야생고양이 등 야생동물은 모두 위험하다”면서 “유해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광주시나 각 구청, 포획단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구례·고흥·장성 등 설 연휴 전남 곳곳 산불

설 연휴 동안 전남의 야산 곳곳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

18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6분께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천은사 인근 지리산 자락에서 촛불을 켜 성묘객에 의해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돼 임야 3만㎡ 이상이 탔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소방대와 경찰 등 600여명의 인력과 소방헬기 13대, 산불진화차 12대 등이 동원돼 오후 5시 30분께 불길이 잡힌 듯했으나, 밤 9시 30분께 불씨가 다시 살아나 16시간만인 다음날 17일 오전 8시 40분께 진화됐다.

이번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바로 아래 마을이 있었지만 다행히 불길이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17일 오전 11시 5분께 고흥군 고흥읍 성촌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소나무 등 100여 그루가 소실되고, 임야 1000㎡를 태운 뒤 4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의 영정사진을 태우다가 불씨가 옮겨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4분께는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장성IC 주변 야산에서도 불이 나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임야 0.03ha가 탔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마을주민이 눈을 태우다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15일 오후 2시 10분께에는 화순군 이서면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1대, 소방차 3대, 화순군 공무원,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끝에 1시간 2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매년 명절 연휴 기간이 되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성묘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년) 설 연휴기간 동안 총 452건의 산불이 났으며, 광주·전남에서는 4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결별 통보 여성 집 찾아가 불지른 50대 남

광주남부경찰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유모(57)씨를 불 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6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A(여·63)씨의 주택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시너(500ml) 2통을 집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또 이날 A씨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원팔에 찰과상을 입히기도 했다.

화재 당시 A씨는 집에 없었으며 A씨의 아들도 대피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불은 안방과 거실 일부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경찰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사실은 관계를 유지하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유씨가 위자료로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뒤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A씨 아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특수폭행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신입 여직원 성폭행·추행 상사 2명 실형

법원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신안의 한 주식회사 대리료 있으면서 2015년 7월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A(여·28)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이씨는 입사한 지 11일 만인 A씨가 업무상 감독 권한이 있는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피고인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김모(2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징역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9월 식당, 지인의 집에서 종업원 B(여·25)씨와 술을 마시며 어깨를 올리고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졌다.

그는 8월부터 자신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B씨를 희석하자고 불러냈으며 B씨가 항의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성추행했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미용기술을 배우는 처지인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표기자 lucky@

# 미성년 고용 성매매 알선

광주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여성업원(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2월 광주 상무지구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회당 8만~13만원을 받고 총 415회 성매매를 알선해 3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용돈을 벌기 위해 연락한 가솔 청소년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주 A씨를 조사한 뒤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매매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동료 구하려 바다 뛰어난 외국인 선원 등 2명 익사 직전 구조



○~설 명절 연휴 때 ‘바다에 빠진 동료선원을 구하겠다’며 연이어 바다로 뛰어난 ‘의리파’ 외국인 선원 등 2명이 오히려 익사위기에 처해 해경이 긴급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18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58분께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1.1km 앞바다에서 선원 A(19)군이 통선 2.5t N호를 타고 정박중 이던 화물선 1830t K호에 옮겨타던 중 갑

자기 너울이 일면서 바다로 떨어졌다는 것.

○~이를 본 N호 선장 B(69)씨와 K호의 미안마 국적 선원 C(34)씨가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3명 모두 목숨을 잃기 직전에 무사히 구조됐는데, 목포해경 관계자는 “익사자가 발생할 경우 바다로 직접 뛰어올 어서는 안되며, 특히 겨울에는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명부환 등을 던져 구조해야 한다”고 당부.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구례, 그랜드 호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지리산은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단란주점/세미나실
- 케이블카 설치 최우선 지역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5억 가능
- 감정가 / 시세 - 25억
- 매매 - 20억

#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